

KWDI

해외통신

2021년 2월 (2021.2.1 ~ 2.28)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 팬데믹은 구조적으로 여성이 취약했던 영역에서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심화시키며,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성평등의 사각지대에 대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폭력피해 지원기관들의 대면 사회서비스가 전면 중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을 기회에도 제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피해가 가중되기도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을 중심으로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 위기 속 해외 여성폭력 피해상황과 폭력피해여성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 NETHERLANDS



코로나19 위기 속 폭력피해여성 지원 현황

곽 서 회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코로나19와 네덜란드의 여성폭력 피해실태

네덜란드 통계청(CBS)은 2020년 3월 초부터 4월말까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¹⁾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1%가 집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8.3%가 지난 12개월간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성적(sexual)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27%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고, 7%가 신체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네덜란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2021년 2월 중순 기준 약 2~3천 수준이다. 확진자 수가 한때 1만여 명을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감소했지만, 총인구수가 1,700만 명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하반기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매우 강도 높은 봉쇄(lockdown)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병원, 슈퍼마켓, 약국 같은 필수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규제는 정부나 민간 기관들의 각종 정책 및 사업 이행에도 불가피한 영향을 미쳤으며, 폭력피해 여성 대상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NL Times (2020.04.25), "Video: Campaign against domestic abuse launched with "tensions rising" at home," <https://nltimes.nl/2020/04/25/video-campaign-domestic-abuse-launched-tensions-rising-home> (접속일: 2021.2.16.)
- Veilig Thuis, <https://veiligthuis.nl/> (접속일: 2021.02.16.)
- Ik vermoed huiselijk geweld (네덜란드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전용 사이트), <https://www.ikvermoedhuiselijkgeweld.nl/> (접속일: 2021.02.16.)
- Rijksoverheid

국가의 거의 모든 경제, 사회 활동 및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1) 해당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실시되었고 지난 12월간의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였던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네덜란드에서는 2020년 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확산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시점을 고려할 때, 응답 내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시점이 일부 겹치므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고, 해당 주제에 대한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이므로 본 원고에서 다루었다. 통계청에서는 네덜란드 16세 이상 인구 중 10만 명을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 협조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중 30,459명이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 네덜란드의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현황

- ▶ 현재 네덜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폭력 피해 여성 지원과 관련해 새롭게 발표한 대책은 없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여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2020년 5월, ‘마스크19(mask 19)’ 코드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 ▶ 가정폭력 피해자는 약국에 가서 ‘마스크19(mask 19)’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약사나 직원에게 말해서 가정폭력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계속 집에 가해자와 머무는 환경에서 전화로 신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일종의 도움 요청 코드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만약 혼자 약국에 왔다 약사는 당사자를 따로 약국 내 분리된 방 안으로 불러 전문 기관인 Veilig Thuis로 전화하도록 도와준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약국에 온 상황인 경우, 약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음을 알린다. 이와 같은 ‘마스크19’코드 프로젝트는 이미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도 실시한 프로젝트로, 네덜란드 내에서는 정부와 전국 약국 연합(Royal Dutch Pharmacists Association, Koninklijke Nederlandse Maatschappij ter bevordering der Pharmacie-KNMP)이 합의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 ▶ 또한 보건복지체육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와 사법보안부(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는 2020년 4월 말,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부는 영상을 제작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했다. 해당 영상은 “당신이 행동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를 독려했다.

- ▶ 네덜란드어로 ‘안전한 집에서’이라는 뜻인 Veilig Thuis는 배우자, 아동, 노인 등 가정 내 다양한 유형의 폭력 관련 서비스를 아우르는 정부 운영 기관으로, 피해자와 처음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통합 창구기능을 맡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전국적으로 2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 지자체 당국에는 담당자(contact point)가 있으며 Veilig Thuis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Veilig Thuis로 연락하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물론 폭력의 강도가 매우 높아 위험한 긴급 상황에는 경찰 측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 공식 웹사이트)

(2020.05.01),

“Huiselijk geweld melden via apotheek,”

<https://www.rijksoverheid.nl/ministeries/ministerie-van-volksgezondheid-welzijn-en-sport/nieuws/2020/05/01/huiselijk-geweld-melden-via-apotheek>

(접속일: 2021.02.16.)

- Statistics Netherlands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네덜란드 통계청),

“Prevalentiemonitor: Huiselijk Geweld en Seksueel Geweld 2020,”

<https://longreads.cbs.nl/phgsg-2020>

(접속일: 2021.02.16.)

또한 Veilig Thuis는 법적으로 폭력 의심 신고 접수, 폭력이나 학대 여부 초기 조사 및 평가, 후속조치 실시 의무가 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고 싶은 가해자, 목격자,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거나 제공한다. Veilig Thuis는 익명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핫라인 전화(24시간 연중무휴) 및 온라인 채팅 상담 서비스(평일 9-17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 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Veilig Thuis에 연락하면 우선 직원이 발신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집에 머물러도 되는지와 같은 피해자 안전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당국으로 연계하고, 아동 학대인 경우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 같이 필요한 곳으로 연계해준다.

2021년 3월, Veilig Thuis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분야 관계자, 자원봉사자, 혹은 가정폭력 피해(추정) 대상 가족이나 친구 등이 포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2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대응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다; 2) 일상에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갖도록 돕고, 그 시간대에는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한다; 3)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인지 알아보고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비상시 바로 당사자와 연락 가능한 방법 등을 미리 마련한다; 4)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을 때는 Veilig Thuis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면 정책 이행이나 서비스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정폭력 피해가 증가하거나 피해자가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운영 기관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채팅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비대면으로도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스위스 SWITZERLAND



코로나19 위기 속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채혜원 독일통신원

스위스 정부와 통계청 발표자료, 스위스 매체 기사 등을 조사한 결과 스위스의 가정폭력 문제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더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는 없다. 다만 몇몇 주정부에서 상담 건수가 늘었다는 보고는 있다. 스위스의 가정폭력피해 대응 조치를 보면 새로운 조치 마련보다는 기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국가의 특정상 주정부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창설한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Opferhilfe Schweiz,
<https://www.opferhilfe-schweiz.ch>
- Büro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2020.3~11),
<Koordination und Vernetzung>
<https://www.ebg.admin.ch/ebg/de/home/themen/haeusliche-gewalt/koordination-und-vernetzung.html>

✔ 코로나19와 스위스의 여성폭력 피해실태

가정폭력과 관련된 2020년 통계 결과는 2021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지난해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 정부와 독일 데이터 분석기관 Statista에서 2020년 10월 28일 발표한 2019년도 스위스 가정폭력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의 코로나19 이전 가정폭력피해 실태

- ▶ 스위스 내무부의 성평등사무소(Büro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스위스에서는 총 19,669건의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유형으로 보면 폭행이 6,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상해 2,035건, 아동 성폭력 383건, 살인 미수와 살인 79건이었다.
- ▶ 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찰에 등록된 모든 범죄의 40%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중 살인이나 폭행, 성폭행 비율은 몇 년 사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파트너(48.6%)이거나 이전 파트너(25.5%)였다.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 관계에서의 폭력은 주로 이성애 커플 관계에서 발생했다. 이 외에 국내범죄의 25%는 자녀와 부모 간 폭력(16.7%) 또는 기타 친족 관계(9.2%)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Statista 자료 결과도 성평등사무소 자료와 비슷하다. 2019년 스위스에서는 약 11,000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결과다. 피해자의 72%는 여성이고 28%는 남성이다.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십 관계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75% 이상이 여성이다. 2019년 스위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9건이며, 이 중 15건이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했다. 파트너십 관계에서 살해당한 여성은 14명으로, 스위스에서는 약 3~4주마다 한 명의 여성이 파트너에게 살해되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본 코로나19 상황 속 스위스 가정폭력 문제 상황

- ▶ 스위스 정부가 꾸린 가정폭력 방지 태스크포스는 창립 후 2020년 눈에 띄는 가정폭력 상담 사례 증가추세가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매체 기사를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건 맞지만, 주정부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주정부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5월 중순 이후 상담 횟수가 증가했음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스위스 언론매체에서 다룬 가정폭력 관련 현황이다.
- 스위스 전역의 가정폭력 관련 수치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경찰과 상담 전문 기관이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취리히주 경찰은 2020년 1년 동안 3,200여 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예상하고, 이는 전년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어 아르가우주 경찰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1% 정도 더 많은 가정폭력 사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베른주 경찰은 아직 수치를 제시할 수 없지만, 2020년 하반기에 가정폭력 발생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생 갈렌주 경찰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정 영역에서의 개입' 업무를 이전에 비해 거의 40% 더 수행해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결과는 이웃의 생활소음 신고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Statista(2020.10.28),
<Häusliche Gewalt in der Schweiz trifft überwiegend Frauen>
<https://de.statista.com/infografik/23311/anteil-der-durch-haeusliche-gewalt-geschaedigten-personen-nach-geschlecht/>
- Aargauer Zeitung(2020.11.20.),
<Coronakrise führt zu mehr häuslicher Gewalt>
<https://www.aargauerzeitung.ch/schweiz/ich-gehe-leider-davon-aus-dass-sich-die-situation-nicht-rasch-bessert-coronakrise-fuehrt-zu-mehr-haueslicher-gewalt-id.1277138>
- SRF Schweizer Radio und Fernsehen(2020.10.5.),
<Alle vier Wochen wird hierzulande eine Frau vom Partner getötet>,
<https://www.srf.ch/news/schweiz/haeusliche-gewalt-alle-vier-wochen-wird-hierzulande-eine-frau-vom-partner-getoetet>

- 일부 지역의 상담센터에서는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바젤 피해자지원기관(Opferhilfe beider Basel)은 2020년 확실히 더 많은 상담이 이뤄졌으며 봉쇄조치 기간 문의는 줄었지만 이후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바젤란트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상담 건수가 약 10% 증가했고, 바젤슈타트에서도 상담이 증가했다. 루체른 피해자 상담센터에서도 2020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특히 봉쇄조치 이후 5월과 6월에 증가가 두드러졌다.
- 베른주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여성 및 아동폭력 방지 재단의 크리스틴 마이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폭력상담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른 상담센터에서 2020년 9월 말까지 전과 비교해 34% 더 많은 상담 문의를 받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 유일한 증가 이유는 아닐 것이라 전했다. 그는 2020년 봄에 가정폭력에 대한 언론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로 인해 상담받는 이들이 늘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 스위스 전역에 통일된 변화는 없다. 예를 들어 졸로투른, 바젤란트와 바젤슈타트, 와트주에서는 경찰이 코로나 봉쇄조치 이후 가정폭력 발생사례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트루가우주 경찰은 오히려 이전보다 폭력 발생사례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루체른과 제네바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 경찰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 스위스의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현황

📌 코로나 위기 속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된 스위스 정부 조치

- ▶ 스위스 정부는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 코로나19 상황 속 가정폭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운 조치가 이뤄지기보다는 기존의 지원대책을 모니터링해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스위스 주정부와 관련 사무소들은 가정폭력 예방과 퇴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 철폐를 위한 스위스 회의(Schweizerische Konferenz gegen Häusliche Gewalt, SKHG)라는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가정폭력 철폐를 위한 주정부간 협력 장려, 가정폭력 문제 가시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입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각 주정부별 참여 기관은 홈페이지(<https://csvd.ch/de/skhg>)에서 볼 수 있다.
- ▶ 가정폭력 방지 태스크포스 창설 (2020년 3월)
 - 스위스 정부는 2020년 3월, '가정폭력 방지 태스크포스'를 창설했다. 이동자유 제한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태스크포스에는 연방 성평등사무소, 연방 법무부와 사회보장청 등 연방기관과 주정부 법무부 회의, 경찰관 회의 등과 같은 주정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가정폭력 철폐를 위한 스위스 회의(Schweizerische Konferenz gegen häusliche Gewalt, SKHG)'도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

- 스위스 정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국구 상담센터, 경찰과 연방 및 주정부 전문가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주정부 피해자 지원 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정폭력 문제와 이용 가능한 보호소에 대한 경찰 보고서를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창설 한 달 후 가정폭력 방지 태스크포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폭력 사례는 전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몇몇 주정부의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는 5월 중순 이후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11일 완화조치 발표 이후 바젤슈타트, 바젤란트, 아르가우주, 졸로투른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 횟수가 증가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표준화 핫라인 개설 논의(2020년 11월)

- 스위스 정부는 2020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럽 전역의 표준화된 핫라인 개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 웹사이트(www.opferhilfe-schweiz.ch)에서 주정부별로 피해자 지원 기관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 스위스 피해자 지원 사이트(Opferhilfe Schweiz)를 보면 전화, 우편, 온라인상 상담할 수 있는 채널로 바로 연결된다. 상담은 무료이며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제공된다. 상담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요청에 따라 수화와 통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 폭력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상담받을 수 있다. 원하는 경우 방문 예약을 하고 직접 상담자와 만날 수 있다.
- 홈페이지에서는 경제적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험 거래 조인, 긴급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폭력피해로 인해 손실된 임금과 이동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상 청구, 변호사나 심리상담, 의료 지원, 안전한 장소 등에 관해서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여성보호소 장기 숙박,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등은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지원 수준은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가정폭력에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 행하는 신체 폭력, 부부간 협박 또는 신체적 폭력, 전 파트너에 의해 스토킹, 파트너 내 합의되지 않은 관계, 가족 내 성폭행, 친척으로 인한 학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 강제 결혼의 위협 등이 모두 속한다. 주정부별 피해자 지원 기관 정보 리스트는 관련 홈페이지 (<https://csvd.ch/de/skkg>, <https://www.opferhilfe-schweiz.ch/en/where-can-i-find-support/>)에서 얻을 수 있다.
- 한편 스위스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스위스 시민이 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연방 외교부 핫라인 +41800 24 7 365(연중무휴 24시간)에 연락해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위한 홍보 캠페인(2020년 4월~)

- 스위스 정부는 폭력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상담번호 등이 적힌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홍보물은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외에 영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알바니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터키어, 티그리냐어, 타밀어 및 아랍어의 13개 언어로 제공됐다. 홍보물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정부 지원센터와 긴급 상황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 홍보물은 봉쇄조치 기간에도 문을 여는 약국과 드럭스토어, 베이커리 위주로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를 위해 스위스 약사협회와 베이커리 및 제과협회, 드럭스토어협회가 캠페인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협회는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매장에서 포스터를 부착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정부는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알리는 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스위스 가정폭력 피해 지원 긴급전화

- 경찰 www.polizei.ch, Telefon 117
- 의료 지원 www.erstehilfe.ch, Telefon 144

성인 상담

- Helpline Die Dargebotene Hand : Tel 143, <https://www.143.ch>
- Helpline Elternnotruf : Tel. 0848 35 45 55 <https://www.elternnotruf.ch>
- Helpline Pro Juventute Elternberatung : Tel 058 261 61 61

청소년 및 아동 Helpline Pro Juventute: Tel. 147, <https://www.147.ch>

▶ 피해자 지원 '여성의 집(Frauenhäuser)' 운영

-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는 17개의 '여성의 집'이 있다. 이곳은 각각 관련 협회 또는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정부의 보조금과 운영주체인 협회나 재단 자금으로 운영된다. 수십 년 동안 개인 기부는 여성의 집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성의 집은 위기개입센터로 폭력 영향을 받은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긴급 대피소와 보호 및 심리 사회적 상담을 제공하는 게 운영 목적이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여성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성의 집 상부조직은 1987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고, 가정폭력과 파트너로 인한 폭력 문제에 대해 알리고 있다. 여성의 집 관계자들은 내부 교육, 경험 교환 및 전국적인 조치 마련 및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한다.
- 코로나 위기 상황 이후 가정폭력 증가에 대비해 스위스의 여러 주에서는 봉쇄 단계의 첫 주에 피해자의 추가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펜데믹 기간 동안 상담 기관과 대피소에서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슈바이츠 여성의집 홈페이지, www.frauenhaus-schweiz.ch).



코로나19 위기 속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에서는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뒤 가족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영국 정부와 폭력 여성 피해 단체들은 다양한 정책을 펼쳐 사각지대로 몰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영국 정부의 피해자지원 정책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와 현재를 중심으로 각각 나눠서 살펴본다. 이후 영국의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와 경찰의 가정폭력 발생 건수를 연구한 보고서를 참고해 코로나19가 가정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코로나19와 영국의 가정폭력 피해실태

코로나19 봉쇄 이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의심 신고 증가

▶ 지난해 3월 영국에서 코로나 19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뒤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지난해 11월 25일 발표한 ‘코로나19 범유행과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가정폭력(Domestic abuse during the coronavirus(COVID-19) pandemic, England and Wales: November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의심 신고는 총 25만 9천 324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24만 2천 413건인 것과 비교해 7%가량 증가했다.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통계청은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시행된 뒤 가정폭력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에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경찰이 가정폭력 관련 범죄 기록을 개선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이러한 상승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봉쇄 기간 런던경찰청(London's Metropolitan police service)에도 가정폭력 사고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런던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4만1천158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3만6천727건이었던 것보다 12%나 증가했다. 특히, 봉쇄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아닌 사건 목격자 등을 통한 제삼자를 통한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많은 사람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예전보다 집에서 발생하는 이웃의 가정폭력을 목격할 가능성이 커졌고, 신고도 증가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 영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20년 3월 23일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영국 전역에 식료품 쇼핑과 운동, 회사 출퇴근과 병원 방문 같은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거주지 밖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의 봉쇄 조치와 더불어 가정 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참고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11.25), "Domestic abuse during the coronavirus(COVID-19) pandemic, England and Wales: November 2020",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articles/domesticabuseduringthecoronaviruscovid19pandemicenglandandwales/november2020> (접속일: 2021.2.20.)
- Home Office (2017. 9.1) "The Role of the 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er: Essential Element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7112/The_Role_of_the_Independent_Sexual_Violence_Adviser_-_Essential_Elements_September_2017_Final.pdf (접속일: 2021.2.21.)
- GOV.UK (2020.4.23) "Funding boost for remote victim service", <https://www.gov.uk/government/news/funding-boost-for-remote-victim-services> (접속일: 2021.2.21.)
- GOV.UK (2020.5.2) "Emergency funding to support most vulnerable in society during pandemic", <https://www.gov.uk/government/news/emergency-funding-to-support-most-vulnerable-in-society-during-pandemic> (접속일: 2021.2.21.)
- GOV.UK (2020.6.5) "Over 100 frontline domestic abuse charities given government funding", <https://www.gov.uk/government/news/over-100-frontline-domestic-abuse-charities-given-government-funding> (접속일: 2021.2.21.)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의 봉쇄 조치와 더불어 가정 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4월 영국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지원단체인 Refuge에 따르면, 봉쇄령이 내려진 뒤 피해 신고 건수가 봉쇄 전주보다 27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GOV.UK (2020.6.26.)
“£22 million emergency coronavirus funding for more than 540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abuse cha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22-million-emergency-coronavirus-funding-for-more-than-540-sexual-violence-and-domestic-abuse-charities>
(접속일: 2021.2.21.)

✓ 영국의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현황

📌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폭력 여성 지원 예산 1천만 파운드 편성

▶ 2020년 4월,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돕는 비영리 단체가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 예산 60만 파운드(한화 약 9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이전 폭력피해 여성 지원단체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는 대면서비스를 주로 제공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유지 조치 때문에 대면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 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온라인 상담과 같은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의 운영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영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상담 인력을 확충해 피해자지원 전화 상담 서비스(helpline) 이용 가능 시간을 늘리고, 화상 채팅이나 온라인 채팅 등 디지털 비대면 상담 서비스 기술을 도입하는 데 사용됐다.

▶ 2020년 5월에는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위기 아동 등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긴급지원금 7천800만 파운드(약 1천185억 원)를 편성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책정된 예산만 1천만 파운드(약 155억 9천만 원)이다. 코로나19 이후 집이 더 위험한 공간이 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확충하고,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를 돕는 데만 810만 파운드(약 126억 원)가 투입됐다. 해당 정책 담당 부처인 주택공동체 지방자치부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에 따르면,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갈 곳을 잃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간을 확충해 침대를 1천500 개 이상 추가하고,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영국 전역에 피해자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는 Refuge, 다른 가정폭력피해 지원단체 4곳과 제휴를 맺어 최대 200 명 수용 가능한 쉼터가 있는 Birmingham and Solihull Women's Aid가 지원금을 받은 주요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피해자 지원단체 Refuge가 단독으로 받아간 지원금만 90만 파운드(약 14억 300만 원)로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ors (ISVA) 채용 예산 확대

▶ 2020년 6월, 영국 법무부는 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ors (ISVA)를 채용하는데 예산 300만 파운드(약 49억9천만 원)를 썼다. ISVA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성폭력 피해자 자문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SARCs) 서비스 소개, 피해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사회 복지 정책, 주거 지원까지 연결하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가다. ISVA는 2005년 제도적으로 정착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ISVA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지역에서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ISVA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권리부터 경찰 조사, 법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 후속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ISVA의 핵심 역할이 피해자를 위한 정서적 지원인 만큼 ISVA 숫자가 늘어나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정부와 피해자 보호 단체의 대면 서비스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1600만 파운드(약 250억 원) 더 투입해 ISVA 숫자를 최대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예산은 올해 4월 집행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전국 약국에서 'ANI' 암호로 도움 요청

- ▶ 올해 시행된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Ask for ANI'이다. 올해 1월 14일 시행된 이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영국 전역 2,855개 약국에서 암호 'ANI'를 사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피해자가 약국 직원에게 ANI라는 암호를 사용하면 약국 직원이 약국 상담실같이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눈 뒤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단체 등으로 연결한다. 동네 곳곳에 있는 약국이나 슈퍼마켓 같은 시설을 가정폭력 피해 신고 거점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 단체 쪽에서 먼저 나왔고, 지난해 5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올해 1월 정책으로 탄생했다.

민관 협업 중심의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 ▶ 코로나19 발생 뒤 영국 정부의 폭력피해 여성 지원정책은 시민사회 단체와 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폭력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폭력 피해자 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금 1천만 파운드를 투입했고,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가인 ISVA를 추가 모집하는데도 지난해 300만 파운드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6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했다. 대면 상담 서비스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폭력 피해자가 약국에서 암호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정책 'ANI' 역시 피해자 지원 단체와 정부가 협업해 만든 정책이다. 즉, 폭력 피해 여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피해자를 돕는 방식이 코로나19 위기 속 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